

이화의료원-옵티메드, 일회용 대장내시경 공동 개발

“감염 위험없는 안전한 의료 제공”

협업 체계 구축... 의학 발전 기대
R&D·임상·학술보고 등 업무 진행
교차 감염 위험 해소 국민건강 기여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4일 이대 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옵티메드와 일회용 대장내시경 공동 개발 및 트레이닝 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병인 의료원장, 편육범 이대서울병원장, 한종인 목동병원장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김헌태 (주)옵티메드 대표이사, 이정주 전무이사, 이재훈 서울산업진흥원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첨단 내시경 기기의 공동개발 및 트레이닝 센터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 관련 기술·생산·허가·시장 자문 ▲전임상, 임상시험 관련 업무 ▲성과물의 국내외 학술 보고 ▲대장내시경 트레이닝 센터 개소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 의료원은 진단 및 치료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 위험이 없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할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왼쪽)과 김헌태 옵티메드 대표이사가 4일 이대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일회용 대장내시경 공동 개발 및 트레이닝 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일회용 대장 치료 내시경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됐다”면서 “옵티메드와의 협업 체계 구축으로 국내 의료기기 기술과 의학수준도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옵티메드 김헌태 대표이사는 “자체 개발한 일회용 위, 십이지장 내시경에 이어 이번에 진행하는 일회용 대장 내시경이 개발되면 기존 수입 브랜드에 의존했던 대장내시경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회용 내시경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소화기관 내시경과 관련한 세계 의료

기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소모품을 제외하고 모두 세척 소독 과정을 거쳐 재사용되고 있는 내시경은 신체 점막 등에 직접 닿기 때문에 제대로 세척 및 소독하지 않으면 녹농균, 살모넬라균등 세균과 B형감염 및 C형간염 바이러스 등이 남아 교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이화의료원과옵티메드가 공동 개발하는 일회용 대장내시경은 교차 감염의 위험을 해소하며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2중 레이어링 자외선 차단... 겨울 날씨에 ‘딱’

더페이스샵

‘파워 롱래스팅 모이스처 선’ 출시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이 춥고 건조한 겨울철 날씨에 바르기 좋은 ‘파워 롱래스팅 모이스처 선’을 출시했다.

‘파워 롱래스팅 모이스처 선’은 더페이스샵의 대표 선크림 제품인 ‘파워 롱래스팅 선’의 모이스처 버전으로, 보습막과 자외선차단막의 2중 레이어링으로 건조하고 약해진 겨울철 피부를 지켜주는 선크림이다.

매마른 피부를 당김 없이 가꿔주는 보습 진정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오랜 시간 촉촉하게 유지시키고,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일상 생활은 물론 야외 활동에서 노출되는 자외선까지 방어해준다. 또한 피부에 촉촉하게 흡수되는 보습 크림 같은 제형으로 백탁 현상이나 끈도는 느낌 없이 남녀 구분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페이스샵 측은 “과거에는 여름에만 중요성이 대두되던 선 제품이 자외



더페이스샵 파워롱래스팅 모이스처선 /LG생활건강

선 차단제의 중요성이 알려지며 계절 구분 없이 사계절 대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신제품은 강력한 선 케어 기능에 보습 성분을 더해 건조한 겨울철에도 피부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습 선크림”이라고 말했다.

파워 롱래스팅 모이스처 선을 포함한 파워 롱래스팅 선 라인의 전 제품은 전국 더페이스샵 및 네이처컬렉션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15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

이대목동병원 남궁인 조교수 선정

보령제약이 제정해 15회째를 맞은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에 이대목동병원 남궁인조교수(사진)의 작품 ‘아침의 퇴근길’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5일 오후 6시 30분 보령제약 본사 중보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말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88편이 출품되었으며 한국수필문학진흥회(회장 이상규)에서 심사를 맡아 총 9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에 선정된 남궁 조교수의 ‘아침의 퇴근길’은 담담한 이야기 속에 어머니와 아들인 작가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배려, 부드러운 소통과 깊은 사랑이 배어 있는 작품이다.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인 필자는 남들이 출근할 때 퇴근을 한다. 밤새 환자



들에게 시달린 필자는 지칠 대로 지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금세 졸음에 빠진다. 이때문에 아들은 어머니를 도움 상대로 선택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잠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집까지 도착하게 하기 위해 무슨 이야기든 계속 들어주고, 무슨 이야기든 계속 이어 간다. 어머니는 외삼촌 집에서 밥을 먹은 이야기를 하고 아들은 간밤에 죽어간 환자 이야기를 하는 식이다. 결도, 초점도 일치하지 않지만, 모자간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깊은 신뢰를 담담히 그려낸 것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세경 기자

패딩의 진화... 쿼팅선으로 부하지 않고 가볍게

부피감과 무게 줄이고 심플하게 변신
깔끔한 핏감 강조한 패딩 언이어 출시

겨울 기본템 패딩이 변신하고 있다. 올 시즌 패션업계는 뉴트로 감성의 푸퍼 스타일 패딩뿐만 아니라 부한 핏감을 줄인 우아한 실루엣의 제품도 함께 선보이는 등 다양한 디테일의 신상 패딩을 내놓고 있다. 부피감과 무게 때문에 패딩을 선택하기를 주저했던 코트족들에게 심플하고 가볍게 떨어지는 핏의 신상 패딩은 좋은 선택지가 됐다. 깔끔한 핏감을 강조한 패딩들은 공통적으로 쿼팅선에 변화를 준 것이 특징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는 논퀼팅 공법을 적용한 제품 ‘벨레누스 다운’과 ‘GTX 아인 L 다운’을 출시했다.

‘벨레누스 다운’은 롱패딩 특유의 부한 핏감을 줄여 활동성과 스타일을 살린 후드 일체형 벤치파카다. 가슴의 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밀레 ‘벨레누스 다운’과 ‘GTX 아인 L 다운’, 지오스퍼릿 ‘이태리구스 시그니처 다운’, 헤드 ‘버티컬 구스 다운’

리곤 프린트와 네온컬러 포인트로 슬림한 핏에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2L 방풍 폴리 소재 사용으로 가벼우면서

도 따뜻하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과는 코트의 스타일리시함을 살린 ‘구스코트 아르테’를 출시했다. 기존 다운재킷과 달리 쿼팅선이 없어 심플하고 포멀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핏감을 강조하면서도 헝가리 구스 다운을 사용해 보온성을 극대화했고 고어텍스 소재를 적용해 방수와 투습 기능을 살렸다.

프리미엄 아우터 브랜드 지오스퍼릿은 ‘이태리구스 시그니처 다운’ 출시했다.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구스 다운 충전재가 적용되었으며 쿼팅선이 없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심플하고 투박한 기존 패딩의 단점을 보완했다.

스포츠 브랜드 헤드는 세로 쿼팅 기법을 사용한 다운 상품 ‘버티컬 구스 다운’을 선보였다. 보통 다운 충전재는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로 쳐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쿼팅선을 디자인한다.

/신원선 기자

한미약품, ‘청춘팔팔’ 이어 ‘기팔팔’ 상표 소송 승소

의약품·영양보충 식품에 ‘팔팔’ 금지

한미약품이 ‘청춘팔팔’에 이어 ‘기팔팔’ 상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및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일반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 식품에도 ‘팔팔’을 붙인 제품명

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한미약품은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팔팔’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트렌디하고 모던하게... 발렌타인 한정판 출시

‘발렌타인 17년 아티스트 에디션’

발렌타인이 세계적인 아티스트와의 콜라베이션을 통해 탄생된 ‘발렌타인 17년 아티스트 에디션’ 한정판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발렌타인 17년 아티스트 에디션’은 미국 브루클린을 베이스로 활동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스캇 알브레트와 함께 했다. 그는 다양한 컬러와 소재를 이용해 ‘순간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패치워크 아티스트로, 영하고 힙한 감성으로 공공, 패션, 스포츠를 넘나들며 글로벌하게 전시를 진행 중이다.

스캇이 완성한 이번 아티스트 에디션은 한층 더 트렌디하고 모던하게 재



발렌타인 17년 아티스트 에디션 /페르노리카 코리아

탄생 됐다. 그의 작품 세계관이 투영된 바틀 라벨과 패키지는 아티스트의 시그니처 패턴이라 할 수 있는 경쾌한 컬러와 패치워크로 더욱 컬러풀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됐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